

오 지 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분석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현 리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분석

오 지 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현 리

인 준 서

김현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과 음악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수강하고 있는 성인수강생들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 음악교육경험,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인수강생의 개인적 사항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의 음악교육경험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생음악교육프로그램에 2년 이상 참여한 수강생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또한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에 받았던 음악교육기간이 5년 이상일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측정변인 세가지요인 중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기효능감 전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

강생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과제를 선호하며 도전적임을 알 수 있으며 2년 이상 평생음악교육에 참여하고 5년 이상의 음악교육경험을 가진 수강생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인수강생들이 느끼는 음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수강생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지속적으로 평생음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효능감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심화학습을 통한 장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강생들에게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꾸준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연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 수강생들이 평생에 걸친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제한점	4
3. 연구문제	4
4. 용어정리	5
II. 이론적 배경	6
1.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6
2. 음악활동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15
3. 선행연구 고찰	24
III. 연구방법	27
1. 연구대상	27
2. 조사도구	28
3. 자료분석	32
IV. 연구 결과	33
1.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의 현황분석	33
2. 조사대상자의 특성	37
3. 성인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47
4. 성인수강생들의 음악교육경험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54
5. 성인수강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58

V. 결론 및 제언 5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1> 지각된 높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자기효능감 효과 비교	17
<표2> 연구 대상 기관	27
<표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설문지 구성	29
<표4> 평생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특성, 음악교육경험, 만족도	31
<표5> 한국음악과 서양음악 관련 프로그램	34
<표6>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현황분석	36
<표7>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사항	38
<표8> 조사 대상자의 음악교육경험	41
<표9>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이 평생음악교육에 도움을 준 요인	42
<표10>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이 평생교육에 비도움을 준 요인	43
<표11> 강사에 대한 만족도	44
<표12>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46
<표13>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47
<표14> 연령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48
<표15>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50
<표16> 직업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51
<표17> 결혼상태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53
<표18> 평생음악교육에 참여한 교육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54
<표19>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 유무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56
<표20>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57
<표21>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5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금 21세기는 급변하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이다. 지식은 날로 방대해져만 가고 있고 인간은 이에 맞춰 폭증하는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지속적인 탐구 활동을 위해 체계적으로 만들어 졌다. 학교의 등장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는 점차 대중화 되었고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자리잡혀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육까지 입학정원이 늘고 있는 추세로 보아 교육에 대한 갈망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인간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시대적인 교육제도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기회뿐만 아니라 분배의 정의가 실현된 민주사회에 맞는 평생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는 이념 또는 ‘가정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삼위 일체적 교육 통합론이며, 평생을 통한 교육과정의 수직적 통합과 개인과 사회생활의 수평적 통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평생교육은 그 동안 연령별로 구분된 폐쇄적 학교교육과 조직화 되지 않은 비효율적인 상태로 방치된 사회교육을 통합 재편성함으로써 교육의 사회화와 사회의 교육화를 이룩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¹⁾

유네스코에서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정연령층을 대상으로

1) 홍기형·이화정·변종임 (2004),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이해, 파주: 교육과 학사. p.23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정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 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최대의 성과를 지향하려는 총체적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²⁾

이처럼 평생교육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며 사회적인 교육화 통합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기관 통계자료집에 제시된 평생교육기관은 비형식 평생교육시설³⁾(사업장 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기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과 초·중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공민학교⁴⁾,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고등교육형태 평생교육기관(방송통신대학, 대학, 전문대학, 특수대학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⁵⁾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는 평생교육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교육이다. 그리고 특별히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 바람직한 음악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조화된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실태 및 교육과정, 인식도, 만족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나건, 1986; 노선영, 2000; 장효전, 2006; 한정순, 2002; 김수정, 2004 윤진, 2004; 추수민, 2003; 최혜진, 2006; 유재열, 2004; 김애련, 2004).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이 학업성취에 만족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음악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음악활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

2) 권이중·심의보·안승렬 (2001), 현대사회와 평생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p.25

3)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통해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관.

4) 공민학교 :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3년간 실시하는 교육기관.

5)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 통계자료집 (2010), p.3-4

다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다(손선희, 2000; 윤영애, 2001; 박광선, 2003; 오윤경, 2005; 박지현, 2009; 정지혜, 2009). 하지만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음악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평생음악교육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평생교육기관 음악프로그램의 성인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⁶⁾ 교육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인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학업적 수행 및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과제에 대한 집중과 지속성을 통하여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효율성에 대한 자기지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들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음악활동에 있어 자신에 대한 지각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보다 도전적이고 어려운 음악적 목표를 선호하며 자기조절에 대한 능력이 보다 뛰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정보원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설득, 정서적각성은 음악활동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과 질을 높이며 지속적인 평생음악교육을 받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과 음악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6) 김아영·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Journal Educational Research, 한국교육학회, 제39권 제1호, p.97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의 개인적 사항, 음악교육경험, 음악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설문 조사하여 그에 따른 결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첫째,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성별, 연령, 직업 등 개인적 사항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 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음악교육경험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 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음악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4. 용어정리

1)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교육 그 자체와 동의어적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회교육이란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통틀어 지칭한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김아영·박인영(2001)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상황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⁷⁾

3) 성인 수강생

일반적으로 성인이란 ‘만20세 이상’을 뜻하고 스스로 자아능력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식을 확장시킬 줄 알며 기술적·전문적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며,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갈 줄 아는 존재를 일컫는다.⁸⁾

이 연구에서는 성인수강생을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로서 학교 외 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등록하여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넓혀 나가며 스스로 자아능력을 개발하는 학습자로 정의한다.

7) 김아영·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Journal Educational Research, 한국교육학회, 제39권 제1호, p.97

8) 전은순 (2011),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경험 및 자기주도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은 변화해가는 사회와 학교교육의 위기, 새로운 학습사회를 건설하는 대안적 교육이념으로 새로운 교육의 이상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시기, 장소 등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자 김종서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삶의 질 향상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학습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⁹⁾ 황중건은 “평생교육은 생활의 여러 단계와 영역에 있어서 최대한의 발달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몽과 교육을 증진시키는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비형식학습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통합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¹⁰⁾

이처럼 평생교육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평생교육의 주창자인 랑그랑(Lengrand, 1970)¹¹⁾과 데이브(Dave, 1976)¹²⁾의 견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랑그랑은 평생교육

9) 김종서 외 (2002), 평생교육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p. 2

10) 황중건 (1994),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파주 : 정민사, p.104

11) Lengrand, P. (1970).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12) Dave, R. H. (1976).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UNESCO Institute for

을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으로 보고 있으며, 데이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비형식적 학습활동”이라고 하며 두 학자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에서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제반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총체적 노력”이라고 제시하였다.¹³⁾

위에서 제시한 평생교육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은 통합성의 특성을 갖는다. 통합성이란 기존의 교육은 학교교육이 전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교육에서의 통합은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을 의미한다. 수평적 통합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통합을 의미하며, 수직적 통합은 인간발달의 각 단계의 교육의 통합을 의미한다.

둘째,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탈정형성을 특성으로 갖는다. 교육장소, 학습자의 연령, 교육과정, 교수 학습자료 및 교재, 교수방법, 교육 평가 방식 등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다. 평생교육의 탈정형성에는 융통성과 다양성의 특징도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성을 특성으로 갖는다. 타인의 요구나 외부의 강제성이나 의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Education

13) 권이중 외 (2001), 현대사회와 평생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p.25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교육의 전 과정에 학습자가 함께 참여하고 자율적인 자기 주도 학습이 중심이 된다.

넷째, 평생교육은 상호학습성을 지닌다. 학교교육이 비교적 일방적인 학습 방식이라면 평생교육은 학습자 상호간,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 지적·인격적 교류와 피드백을 통한 학습이 중요시되는 상호학습의 특성을 지닌다.

다섯째, 평생교육은 참여와 공존성의 특성을 갖는다. 평생교육에서는 계획·실행·평가 전 과정에서 모든 학습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는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공존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통합성, 탈정형성, 학습자의 자발성, 상호학습성, 참여와 공존성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해보면 평생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교육기회 균등화와 확대에 기여하는 학습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2) 우리나라 평생교육 관련 용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어들은 분석 기준 등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다양한 용어들 중 사회교육, 성인교육, 계속교육, 순환교육, 지역사회교육용어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교육

사회교육(social education)이란 학교교육에 의한 교육활동을 마친 후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사회교육은 평생교육과 가장 혼동되는 개념으로 이를 구분하면 평생교육은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며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체제속의 통합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이어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들여온 것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 이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주(1980)는 “사회교육이란 형식적 학교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적응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계속교육, 추가교육, 영구교육, 또는 재교육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김승한(1981)은 “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제외한, 학교 외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하였다. 김도수(1994)는 “사회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의한 교육활동을 제외한 청소년과 성인이 정보,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변화를 목적으로 일생동안 계속되는 자기 교육이며 평생학습활동”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사회교육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며 지속적인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교육은 학교 외 교육과 학교교육과의 통합을 주장하며 대상과 영역, 교육방법에 있어서 평생교육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사회교육이란 평생교육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천

14) 홍기형 외 (2004),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p.25-26 재인용

지향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외의 모든 잠재적 학습자들에게 최대한의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성인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교육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학교교육을 수료한 성인에 대한 교육활동 모두를 가리킨다.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내용, 수준, 방법 등 성인에 적용되는 모든 교육적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성인을 위한 학교교육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교육과는 다르다. 따라서 성인교육의 용어를 정리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일(1987)은 “성인교육이란 교육의 본래적 주기를 완료하였거나 중단한 자, 즉 본업이 학생이 아닌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그리고 기간 학제에 준한 정규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질 향상과 자기 충족, 건전한 사회적 관계의 증진과 사회적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기초 및 교양교육, 직업기술 전문교육, 건강복지, 가정생활교육, 시민생활교육, 여가선용 등의 교육 내용 영역을 지속적인 주간 전일제 출석수업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학습편의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자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상길(1995)은 “성인교육은 성인들이 사회적 역할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변화와 타협하는 것을 도와주며, 개인의 삶 속에서 보다 많은 성취를 이룩하고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강제성이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성인들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의지적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¹⁵⁾

위의 내용에서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을 종합해보면 성인교육이란 성인 학습자들이 제1차로 교육의 주기를 완성하였거나 중단하고, 제2차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자 함으로, 학교 외 교육을 통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다. 계속교육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 further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는 continuing education으로, 영국에서는 further education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계속교육이란 의무교육을 다 마친 뒤에도 개인이 직업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다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의 용어이다. 대상은 주로 성인이며 교육의 방식은 학교교육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교육이나 성인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라. 순환교육

순환교육(reccurent education)이라는 개념은 1973년 OECD 유럽회의 때 발의된 것으로 산업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을 뜻한다. 순환교육은 학교교육과 직업생활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연계 짓는 교육체제를 전제로 한다. 이를테면 학교교육을 마치고 각자 직업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기업내 교육, 사내연수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일정기간의 유급휴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파견, 취학케 하는 형식의 교육프로그램도

15) 홍기형·이화정·변종임 (2004),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p.27-28 재인용

포함된다.¹⁶⁾ 다시 말해서 순환교육의 개념은 학교와 직장인 사회 사이를 학습자들이 왕래 하면서, 주목적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업적 재적응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내며 계속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계속교육의 개념과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순환교육이란 학교와 사회 사이를 학습자들이 왕래하면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낼 수 있도록 순환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 교육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생활향상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그들의 교육적 욕구를 받아들여 봉사한다는 개념을 지닌 용어이다. 처음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나 다른 저개발 국가들에서 정식으로 사용한 공식용어로, 최근에 와서는 발전도상에 있는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교육행정기구에 지역사회교육국(Community Education Division: PENMAS)이 포함되어 있기까지 하다.¹⁷⁾

지역사회교육은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본래 학교교육의 목적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보다 더 접근시키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의 물적,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과 유사개념인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으로서 지역사회

16) 김종서·황종건·김신일·한승희 (2002), 평생교육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p.13

17) 권이중·이상오 (2010), 평생교육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p.32

의 성인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교육, 성인교육, 지역사회교육'의 개념을 포함하여 평생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3) 평생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면 항상 입시위주의 교육이 빼놓지 않고 자리 잡는다. 진학을 통한 사회적 성취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예체능 과목들은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시된 채 공공연히 학교교육과정에서 무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음악교육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설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정이다.¹⁸⁾ 이러한 학교교육 내에서의 음악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 성인학습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다.

나건(1986)¹⁹⁾은 평생교육에 있어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학교음악교육과 연계성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 음악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학교 음악교육은 제도상의 제약들로 인해서 충분하고 풍부한 음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음 교육과정을 위한 준비로 인해 주입 교육 내지는 교과서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음악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음악교육이 요구되며, 이는 학교 음악교육과의 긴밀

18) 김은양 (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19) 나건 (1986),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 음악교육의 확장으로서 필요하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확장시켜야 한다. 즉, 미취학 아동이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를 졸업한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학교를 개방하거나 학교의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음악교육의 확장·발전된 음악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평생교육에 있어 학교 음악교육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의 교육활동으로서 필요하다. 음악교육은 일생동안 생활의 체험을 통해 계속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의 학교 음악교육은 학습자의 개별적·선택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또한 학교 음악교육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므로 학교 음악교육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해결해 주는 독자적인 음악교육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의 제시에 맞게 1980년대 중반부터 UNI(Unesco Institute of Education)는 데이브(Dave)의 주도하에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의 기초 영역”을 선정하였고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교육받고 학습해야 할 기초 지식 영역들로 커뮤니케이션, 시민, 테크놀로지 등과 더불어 예술영역을 선정하였다.²⁰⁾ 예술영역 중 음악교육은 인간의 문화적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음악교육은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심미적인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삶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얻는다.

음악의 심미적인 경험과 문화적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 정규의무교육을 마친 후 음악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

20) 윤진 (200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교육실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은 성인들에게 음악을 듣고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정년이 줄어든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만족시켜야 할 정서적·감성적인 영역을 긍정적으로 채우며 여러 가지 음악을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일상가운데 자유로이 음악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 학교교육에 대한 한계에서 벗어나 각박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심미적 경험과 문화적 활동을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인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인간의 정서적인 면과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음악교육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응하여 학교음악교육의 확장과 교양교육차원에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낀다.

2. 음악활동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1)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본질

자기효능감 이론은 반두라(Bandura, 1977)²¹⁾의 사회인지이론에서 발전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수행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기초한 자기도식이론의 하나다.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의 지각과 행위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동기요인으로 자기참조적 사고(self-referent thought)를 제시하며 반두라(Bandura, 1977)는 자기 참조적 사고를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고 하였다. 즉, 개인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1) Bandura,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에 따라 행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²²⁾

사회인지이론에서 발전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 및 적응, 인지적 과제, 직무 만족도 및 적응, 개인의 건강수준 등과 같은 영역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업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의 특성은 자기의 효능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고 클수록 과제 수행 시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제에 임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노력부족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효율성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이고 낮은 사람일수록 불안도가 커서 실패를 능력부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확신이 학업 수행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정의에 이어 김아영·박인영(2001)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자기효능감의 위계적 구조 속에 위치하는 특정 수준의 효능기대라고 개념화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적 상황에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²³⁾ 쉥크(Schunk, 1981)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기대수준에서 제시된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각적 능력이라고 보았다. 즉,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란 학업적 상황에서 자신이 그 과제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말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의 특성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2),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Schunk, 1983),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있게 노력한다.²⁴⁾

Bandura(1986)는 학업적인 상황에서 과제 관련 행동과 장기적인 효과의

22) 김아영 (2010), *학업동기*, 서울: 학지사, p. 277

23) 김아영·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Journal Educational Research*, 한국교육학회, 제39권 제1호, p.95

24) 전은순 (2011),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경험 및 자기주도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측면에서 지각된 높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1>²⁵⁾과 같다.

<표 1> 지각된 높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자기효능감 효과 비교

	높은 자기효능감	낮은 자기효능감
과제	어려움에 직면하면 노력이 강화된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노력이 약화된다.
관련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미 습득된 기술이 강화된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과제를 완전히 포기한다.
행동	상황이 필요로 하는 것에 노력과 주의가 집중된다.	개인적인 결점과 어려움에 주의가 집중된다. 문제가 확대된다.
장기적인 효과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개발에 도움이 된다.	풍부한 환경과 활동을 회피함으로써 자기 개발을 저지한다.
	실패의 원인을 능력의 부족보다 노력의 부족으로 돌린다.	개인적인 단점에 주목함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한 한 가지 기제로서 포부 수준을 낮춘다.
	힘든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	다양한 수행 상황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 밖에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수행과 성취 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연구 중 박인영(1999)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25) 김정희 (2006), “교사효능감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영재와 영재교육, 한국영재교육학회, Vol.5 No.1, p.13 재인용

학습자의 학문적 수행과 성취수준을 잘 예측해 준다고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들은 학문적 수행능력과 성취수준이 높으며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실패의 원인을 능력부족이 아닌 노력부족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수행능력과 성취수준이 낮으며 실패의 원인을 노력부족이 아닌 능력부족으로 여긴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첫째, 학습자는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자신과 비슷한 타인의 성취를 관찰하는 모델학습으로 대리경험을 하며 셋째,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정서적 각성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

김아영 박인영은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네 가지 하위 구성요인으로 보고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론적 구성요인은 다음과 같다.²⁶⁾

가. 과제난이도 선호

과제난이도 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란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26) 김아영·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Journal Educational Research, 한국교육학회, 제39권 제1호, p.100-101.

선택한다. 그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으로 나타나 다시 높은 효능감을 갖게 한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쉬운 과제를 선택한다. 이것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

나. 자기조절 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이란 한 개인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는 수행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조절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확신정도를 말한다.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 자기조절체계 속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조절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에 대한 효능기대가 성취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하위요소이며 자기조절과정은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반응의 하위 기능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다. 자신감

자신감(self-confidence)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자신감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믿음이라고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정도는 그 능력을 요하는 행위를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효능성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인지적인 판단을 하며 성립이 되고 정서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라. 귀인

귀인(attribution)이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무엇으로 돌리는가를 말한다.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 동기 등으로 돌릴 경우 이는 내부귀인이라고 하며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을 환경, 타인 또는 우연 및 운으로 돌릴 경우 이는 외부 귀인이라 한다. 예를 들어 과제가 잘 되었으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과제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면 환경이나 타인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귀인의 관계는 양방적이며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귀인 할지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어떤 결과에 대해 어떤 귀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의 증진이나 감소,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²⁷⁾

이와 같이 김아영·박인영(2001)은 네 가지 이론적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수행과제나 상황에 따라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력이 낮아 타당도가 떨어지는 귀인문항을 제외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를 하위 구성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7) 김아영·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Journal Educational Research, 한국교육학회, 제39권 제1호, p.101

3) 음악활동과 자기효능감

학습자가 학업적 상황에서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1977, 1986, 1997)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할 때 음악활동에서의 자기효능감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음악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믿음,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²⁸⁾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의 세 하위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를 음악 학습으로 적용하면 자신감은 음악 학습상황에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과제난이도 선호는 음악학습 및 과제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정도를, 그리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음악적 목표 달성에 있어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²⁹⁾ 즉, 음악활동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과제수행을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효능성에 대한 판단이 높아지고, 특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음악적 목표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높고, 자기조절 전략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효능감도 높아진다.

자기효능감의 정보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 라는 네 가지 정보원을 갖는다.³⁰⁾ 이는 자기효능감의 음악적인 하위요인과 더불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실제 음악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학습동기를 이끌

28)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분석”, *음악교육공학*, vol. 8, p.153

29)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분석”, *음악교육공학*, vol. 8 p.155.

30) 이지영 (2012), “이해를 위한 교수를 적용한 음악창작수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어 낼 수 있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비슷한 과제에서의 성과 즉, 성취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비슷한 과제에 대한 과거의 성과 및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음악에서의 자기효능감은 가창 및 기악활동 등 이전의 음악적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³¹⁾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는 성취경험은 반복적인 경험에 의하여 발달한다. 자기효능감이 발달하면 가끔 하는 실패경험은 자신의 능력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발달된 자기효능감은 성공적인 음악적 성취 경험과 음악활동 등 음악적인 자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음악적인 자기효능감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취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행동의 변화는 직접적인 경험 이외에도 간접적인, 즉 대리경험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음악활동을 하는 수업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타인의 성공적인 연주를 보며 자신도 연주를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때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비슷한 타인이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주에 실패하는 것을 본다면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며 성공적인 연주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된다. 따라서 음악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음악활동에 대한 대리경험은 학업적인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셋째, 교사와 같이 학습자에게 중요한 사람의 지지나 기대 역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 언어적 설득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자신이 믿도록 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설득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러한 언어적 설득은 설득하는 사람의 지위

31) 오한숙 (2012), 통합적 음악학습(CMLS)을 적용한 국악 수업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5

나 신용, 전문적 식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연주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진 학습자에게 음악전문가의 식견으로 훌륭히 연주할 수 있으며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언어적인 지지가 있다면 그 학습자의 음악적인 자기효능감은 증진될 것이다. 따라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에게 전문적인 지도사의 지지는 학습자의 학업적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각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긴장이 고조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보다 긴장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성공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을 때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며 숙달된 경험이 성공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처 효능감을 강화시킨다. 반대로 생리적 흥분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급격히 늘어난 스트레스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형성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고통을 상승시키도록 자기 각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평소 연주를 잘하던 상황이었는데도 예기치 못한 낮은 환경이 닥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연주를 잘 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이 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음악적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의 주된 정보원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설득, 정서적각성은 음악활동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하나하나 독립되어 혹은 모두 합쳐져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규의무교육을 마치고 제 2차로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을 시작하며 삶의 만족과 질을 높이기 위해 평생음악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은 이들 4가지의 정보원에 영향을 받아 음악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을 받고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에 관련된 자기효능감 연구과 음악관련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정현수(2011)³²⁾는 중년기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 연구에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평생교육의 참여동기는 자아실현과 배움에 대한 동기가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84.1%의 높은 만족도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여성의 참여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세대 주거형태와 건강상태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진숙(2010)³³⁾의 평생교육 여성학습자의 자기효능감 분석연구에서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여성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30대와 40대의 주부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 여성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을 세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연령, 교육상태, 월수입, 결혼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수료기간과 총 참여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보다는 교육이수기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은순(2011)³⁴⁾의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경험 및 자기주도학습이

32) 정현수 (2010), “중년기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성진숙 (2010), “평생교육 여성학습자의 자기효능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기주도 학습 전체와 자기효능감 전체 간, 자기주도 학습 하위요인과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간 대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거 평생학습 참여경험 유무와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지연(2011)³⁵의 성악발표회를 통한 연주경험에 따른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학년, 성악이외에 배우는 악기의 유무, 성악발표회 이전에 음악회 경험의 유무를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로 성악이외에 배우는 악기의 유무에 상관없이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 배우는 악기가 있는 학생이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또 연주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음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오한숙(2012)³⁶의 통합적 음악학습(CMLS)을 적용한 국악수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3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음악적 자기효능감의 전체 향상도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 분석결과 남학생에게서는 자신감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박광선(2003)³⁷의 음악활동이 초등학교 신입생의 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34) 전은순 (2011),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경험 및 자기주도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이지연 (2011), “성악발표회를 통한 연주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오한숙 (2012), 통합적 음악학습(CMLS)을 적용한 국악 수업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치는 영향연구에서는 초등학교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음악활동 교육은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현(2009)³⁸⁾의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분석에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 및 향상에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음악적 경험, 교사의 기대, 가정음악환경 변인 순으로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 관련에 있어 매우 다양하게 조사·개발·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평생교육기관에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은 선행연구의 대상들과 같이 동등한 학습자의 신분으로서 그들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37) 박광선 (2003), “음악활동이 초등학교 신입생의 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8)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분석”, 음악교육공학, vol. 8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들 중 20세 이상 성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 기관은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고양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개 기관, 주민자치센터 1개 기관, 지역사회복지관 2개 기관, 문화센터 3개 기관, 공연장시설 평생교육센터 1개 기관, 지역여성회관 1개 기관, 평생학습관 1개 기관 등 총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3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의 문화교육담당자 및 관계자들, 지도사에게 협조를 구한 뒤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합하였다. 설문지는 총 220장을 배부한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03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표 2> 연구 대상 기관

구분	대학부설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문화센터	공연장시설	지역여성회관	평생학습관	합계
기관 수	1	1	2	3	1	1	1	10
설문지 수	22장	14장	25장	7장	18장	23장	20장	203
				17장				
			32장	25장				
지역	서울	고양	고양	서울,고양	고양	고양	서울	

2. 조사도구

1) 학업적 자기효능감 조사도구

평생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조사를 마친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문항은 음악교육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문항의 단어를 음악적 용어로 바꾸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지 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28개의 문항 중 각 요인별로 <표 3>과 같이 구분하였으며 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순으로 사용하였다. 28문항 중 과제 난이도 선호도의 문항은 <표 3>에서 구분된 것과 같이 9개 문항, 자기조절효능감은 11개 문항, 자신감문항은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검사지의 신뢰도를 Cronbach 로 검사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전체) 계수는 Cronbach = .897, 과제난이도 선호도 문항은 Cronbach = .853, 자기조절효능감 문항은 Cronbach = .837, 자신감 문항은 Cronbach = .766이었다. Cronbach 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보통 신뢰도가 0.8이상의 값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며 0.7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조사도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신뢰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설문지 구성

측정 변인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h
과제 난이도 선호	-어려운곡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다른친구들이 못한연주에 도전하고싶다 -어려운곡은 피해가고싶다 -연습곡은쉬울수록 좋다	1,2,3, 4,10, 17,19 26,28	9	.853
자기 조절 효능감	-새로운내용을 알고있는 것과 연결할 수 있다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시간 안에 과제를 마칠 수 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효과적인 연습방법을알고 집중을 잘할수있다 -연습 전 계획을 세우고 연습한다 -연주를 하기전 망칠것 같다	5,7,9, 12,14 15,18 20,21 23,27	11	.837
자신감	-연주를 시키고 실수를 할까봐 불안하다 -레슨시간이 되면 우울하다 -나는 쉬운 곡만을 선택할 것이다 -창피를 당할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레슨전날엔 불안해서 잠을 못잔다 -친구들 앞에서 하는 연주는 스트레스다	6,8,11 13,16 22,24 25	8	.766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28	.897

2) 평생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과 음악적 특성 조사도구

평생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음악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현수(2010)³⁹⁾의 중년기 여성의 평생교육참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와 윤진(2004)⁴⁰⁾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교육 실태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참고하여 음악교육 전문가와의 협의로 몇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도구에서는 개인적 사항을 <표 4>와 같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음악교육경험은 수강강좌, 참여 동기, 교육기간,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유무, 받은 시기, 경력, 이전에 받은 교육이 평생음악교육에 도움을 주었는지 등의 10개 문항과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9) 정현수 (2010), “중년기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윤진 (200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교육 실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4>평생교육 음악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특성, 음악교육경험, 만족도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개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교육수준 - 직업 - 결혼상태 	<p>[I]</p> <p>1~5</p>	5
음악 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하고 있는 수강강좌 - 수업형태 - 참여 동기 - 현재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 교육기간 -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경험 유무 -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을 받았던 시기 -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을 총 받은 기간 - 이전 음악교육경험 유무가 평생음악교육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 가장 도움이 된 항목 -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은 항목 	<p>[II]</p> <p>1~5, 5-1, 5-2, 5-3, 가, 나</p>	10
학습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계획서 - 강사 음악전문성 - 강사와의 인간관계 - 강사의 학습 진도속도 - 강사의 수업참여 유도 	<p>[III]</p> <p>1~5</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료 - 교육시설 -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 강의내용의 이해도 - 향후 계속 수강할 의향 여부 	<p>[III]</p> <p>1~5</p>	5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 분석 처리를 위해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처리 유의수준은 각각 $p < .05$, $p < .01$ 에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수강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세 가지 요인(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으로 문항을 나누고 총 28개의 문항 중 12개 문항을 역코딩 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큰 것이다. 척도는 Likert의 5점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순으로 사용하였다.

둘째, 평생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과 음악교육경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성인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과 음악교육경험, 음악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변인으로 구분한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전체 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분석결과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의 현황분석과 음악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 음악교육경험,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빈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음악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서는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1.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의 현황분석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선행연구, 브로슈어, 직접방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먼저 음악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보면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사업장부설 문화센터, 평생 학습관, 공연장시설 평생교육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여성회관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음악교육프로그램은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으로 분류되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음악과 서양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표 5>에서 볼 수 있다.

<표 5> 한국음악과 서양음악 관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한국음악	장고, 민요, 해금, 대금, 소금, 단소,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판소리 등
서양음악	하모니카, 팬플룻, 플룻, 기타, 오카리나, 클라리넷,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베이스, 색소폰, 아코디언, 피아노, 오르간, 드럼, 타악기, 성악, 콘서바토리,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 음악이론, 지휘, 우쿨렐레, 감상법, 챔버앙상블, 음악영어, 뮤지컬, 생활음악반주, 뮤직어드벤처스쿨, 플룻앙상블, 피아노조율과정 등

다음으로 인터넷과 선행연구, 브로슈어 등을 통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대학이외의 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는 <표 6>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크게 일반과정(비학위제)과 학점은행제과정(학위제)으로 분류되어 있다. 학위제에 속하는 학점은행제과정은 이수한 학점을 가지고 학위취득을 하게 된다. 반대로 일반교양과정에 속하는 비학위제에서는 학점이수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은 학위제가 아닌 비학위제(일반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학위제와 비학위제에 따라 차이가 나며 적게는 10만원대 후반 대부터 많게는 100만원대까지 차이가 나며 대학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수강료는 3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원대 초반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는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 레슨방식은 서양음악과정의 경우 1대1 개인레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음악과정은 그룹 활동식의 레슨이 많다. 대학이외의 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 레슨방식은 1대1 개인레슨보다는 그룹 활동식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양음악과정과 한국음악과정 모두 그룹 활동식의 수업이 대부분으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보다는 그룹활동식 수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 수업횟수는 요일별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중 주 6일안에서 주 1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님과 따로 상담 하에 개별적으로 개인레슨시간을 정하는 반면 대학이외의 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 수업횟수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과 같이 주6일 주1회 수업으로 같고 개별적인 레슨시간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한꺼번에 레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은 10주, 12주, 15주, 16주 등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본 15주에서 16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이외의 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 교육기간은 거의 대부분이 3개월에서 4개월 교육기간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수업시간은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이외의 평생교육원에서는 40분에서 1시간 반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곱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 모집인원은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곳과 정원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하며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20명이상까지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대학이외의 평생교육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모집이지만 대학부설과 마찬가지로 5명~20명까지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예외적으로 노래교실은 50

명의 정원모집을 하기도 한다.

여덟째,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음악교육프로그램 특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기가 끝나는 동시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및 강사증이 수여되며 향상음악회, 음악대학장 자문 하에 국내외에서 연주 및 연주 활동중인 우수강사진 초청지도, 외국학교와 학점교류 및 학술교류 등의 특전이 있다. 하지만 매 학기가 끝나고 향상음악회를 여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이외의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의 특전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같이 매 학기가 끝나고 향상음악회를 여는 곳도 있으나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떤 기관에서는 기악수업시간에 필요한 악기는 대여를 해주는 곳도 있었으나 별도구입을 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학부설평생교육원 이외의 기관들은 개인레슨시간을 상담 후에 결정하는 운영방식인 대학부설평생교육원과는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맞춰오는 방식으로 아침시간, 저녁시간에 수업이 개설되어 편한 시간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표 6>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현황분석

구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이외의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학위제, 비학위제(일반과정)	비학위제(일반과정)
수강료	10만원대 후반 ~100만원대 후반	3만원 ~ 10만원대
레슨방식	서양: 1대1레슨 한국음악: 그룹활동식	서양: 그룹활동식 한국음악: 그룹활동식
수업횟수	주 6일 주1회	주 6일 주 1회

구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이외의 평생교육원
교육기간	10주, 12주, 15주, 16주 기본 15주~16주	3개월, 4개월
수업시간	30분~3시간	40분~1시간 반
모집인원	5명~20명 이상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모집. 5명~20명 이상
특전	총장명의로의 수료증 향상음악회(거의 없음) 외국학교와 학점교류 등	향상음악회(거의 없음)
기타	악기별도구입	악기대여가능

2. 조사대상자의 특성

1) 평생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과 음악교육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현재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사항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방법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인수강생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전체 참여자 중 72.4%를 차지하여 여성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둘째, 연령은 40대 이상이 전체참여자 중 159명(78.4%), 40대 이하는 44명(21.7%)로 40대 이상의 참여자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연령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는 연령대는 51세에서 60세로, 전체 참여자 203명 중 71명(35.0%)으로 참여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수강생이 138명(68%),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수강생이 65명(32%)으로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수강생들의 참여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직업은 주부가 104명(51.2%), 전문직이 25명(12.3%), 기타 19명(9.4%) 등의 순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수강한 수강생들은 직장인 보다 주부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결혼상태는 기혼이 185명(91.1%), 미혼이 18명(8.9%)로 기혼자의 참여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사항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성별	여	147	72.4
	남	56	27.6
	계	203	100.0
연령	51~60세	71	35.0
	60세이상	47	23.2
	41~50세	41	20.2
	31~40세	14	14.8
	30세이하	30	6.9
	계	203	100.0
교육수준	대졸 이상	138	68.0
	고졸 이하	65	32.0
	계	203	100.0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직업	주부	104	51.2
	전문직	25	12.3
	기타	19	9.4
	사무직	16	7.9
	무직	13	6.4
	서비스직	12	5.9
	판매직	8	3.9
	기술직	5	2.5
	생산직	1	.5
	계	203	100.0
결혼상태	기혼	185	91.1
	미혼	18	8.9
	계	203	100.0

2) 수강생들의 음악교육경험

조사 대상자인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음악교육경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은 피아노, 첼로, 오카리나, 아코디언, 색소폰, 클라리넷, 해금, 하모니카, 단소, 대금, 장구, 사물놀이, 민요, 성악, 기타, 타악기 등의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수업형태는 그룹 활동식이 122명(60.1%)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레슨식이 73명(36%), 강의식이 8명(3.9%)로 그룹활동식의 수업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는 자기계발과 음악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참여 및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참여한다가 187명(9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평생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총 참여기간은 2년 이상이 93명(45.8%)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1년~2년 미만이 38명(18.7%), 1개월~3개월 미만이 29명(14.3%)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 경험 유무의 조사결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06명(52.2%),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97명(47.8%)으로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수강생들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을 받은 시기는 음악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만 조사되었는데 그 결과는 기타선택이 가장 많았다. 졸업 후 및 결혼을 한 후에 받았다는 응답자가 38명(18.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초등학교 시기 20명(9.9%), 대학교 시기 14명(6.9%)순으로 높았다.

음악교육을 받은 기간(경력)은 5년 이하는 72명(35.5%), 5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25명(12.3%)으로 이전에 받은 음악교육의 기간이 5년 이하인 수강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받은 음악교육이 평생음악교육에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예 88명(43.3%), 아니오 9명(4.4%)으로 도움을 받았다 의 응답자가 많았다. 88명 응답자들의 도움여부1, 2, 3순위를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전에 받은 음악교육이 어떤 점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9>에서 볼 수 있다. 가장 도움이 된 1순위는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증진으로 29.7%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 2순위로는 음악교과에 대한 이해(19.0%), 3순위는 음악적 표현력 증대(18.0%)로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은 평생음악교육을 받았을 때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증진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9명의 응답순위를 <표 10>에서 보면 1순위는 배웠던 기간이 짧아서(42.6%), 2순위는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35.1%), 3순위는 음악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13.0%)로 나타났다.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이 평생교육에 도움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받은 음악교육을 배운 기간이 짧아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표 8> 조사 대상자의 음악교육경험

(단위: 명, %)

구분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수업형태	그룹활동식	122	60.1
	개인레슨식	73	36.0
	강의식	8	3.9
	계	203	100.0
참여동기	자기계발과 음악적소양 여가생활을 위해	97	47.8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	90	44.3
	취업목적	8	3.9
	기타	3	1.5
	인간관계 확대	3	1.5
	계	2	1.0
총 교육기간	2년이상	203	100.0
	1년~2년미만	93	45.8
	1개월~3개월미만	38	18.7
	6개월~1년미만	29	14.3
	3개월~6개월미만	22	10.8
	계	21	10.3
	계	203	100.0

구분		응답자 수	비율
학교교육이외의 음악교육경험유무	아니오	106	52.2
	예	97	47.8
	계	203	100.0
음악교육을 받은시기	기타	38	18.7
	초등학교	20	9.9
	대학교	14	6.9
	초,중,고,대학	7	3.4
	초,중,고	7	3.4
	중학교	6	3.0
	고등학교	5	2.5
	계	97	47.8
음악교육을 받은 경력	5년이하	72	35.5
	5년이상	25	12.3
	계	97	47.8
도움여부	예	88	43.3
	아니오	9	4.4
	계	97	47.8

<표 9>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이 평생음악교육에 도움을 준 요인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증진	25(28.4%)	29(33.7%)	22(25.6%)	29.7%
음악교과에 대한 이해	21(23.9%)	13(15.2%)	10(11.6%)	19.0%
음악적 표현력 증대	8(9.1%)	26(30.2%)	18(20.9%)	18.0%
음악연주능력	15(17.0%)	10(11.6%)	22(25.6%)	16.7%
올바른 인격형성과 삶의 질 향상	17(19.3%)	5(5.8%)	8(9.3%)	13.2%
사회성 발달에 도움	0(0%)	3(3.5%)	6(7.0%)	2.3%
기타	2(2.3%)	0(0%)	0(0%)	1.1%
합계	88(100%)	86(100%)	86(100%)	100%

<표 10>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이 평생교육에 비도움을 준 요인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비율
배웠던 기간이 짧아서	5(55.6%)	4(44.5%)	0(0%)	42.6%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4(44.4%)	3(33.3%)	1(11.1%)	35.1%
음악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0(0%)	0(0%)	7(77.8%)	13.0%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0(0%)	2(22.2%)	0(0%)	7.4%
음악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0(0%)	0(0%)	1(11.1%)	1.9%
기타	0(0%)	0(0%)	0(0%)	0%
합계	9(100%)	9(100%)	9(100%)	100%

3) 수강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가. 강사의 만족도

만족도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문항 당 그렇다 라고 응답한 수강생들의 수를 보면 강의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115명 (56.7%), 강사의 음악전문성에 대하여 만족 한다 94명(46.3%), 강사와의 인간관계는 원활하다 95명(46.8%), 강사의 학습 진도속도는 적당하다고 생각 한다 97명(47.8%), 강사는 학습자의 수업참여를 유도 한다 100명 (49.3%)의 문항 모두 그렇다 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강사 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사의 만족도문항에 대한 Cronbach(신뢰도)는 .933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강사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평균	Cronbach
강의계획서대로 진행	매우 그렇지않다	5	2.5	3.97	
	그렇지 않다	2	1.0		
	보통이다	34	16.7		
	그렇다	115	56.7		
	매우 그렇다	47	23.2		
	계	203	100.0		
강사의 음악전문성에 대한 만족	매우 그렇지않다	5	2.5	4.25	
	그렇지 않다	1	.5		
	보통이다	18	8.9		
	그렇다	94	46.3		
	매우 그렇다	85	41.9		
	계	203	100.0		
강사와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매우 그렇지않다	6	3.0	4.04	.933
	그렇지 않다	3	1.5		
	보통이다	33	16.3		
	그렇다	95	46.8		
	매우 그렇다	66	32.5		
	계	203	100.0		
강사의 학습진도속도에 대한 만족	매우 그렇지않다	6	3.0	3.93	
	그렇지 않다	6	3.0		
	보통이다	39	19.2		
	그렇다	97	47.8		
	매우 그렇다	55	27.1		
	계	203	100.0		
수업참여 유도에 대한 만족	매우 그렇지않다	6	3.0	4.06	
	그렇지 않다	3	1.5		
	보통이다	29	14.3		
	그렇다	100	49.3		
	매우 그렇다	65	32.0		
	계	203	100.0		

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각 문항 당 그렇다 라고 응답한 수강생들의 수이다. 다음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료는 적절하다 109명(53.7%), 교육시설은 적당하다 103명(50.7%), 프로그램은 나의 음악적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103명(50.7%), 프로그램의 강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 97명(47.8%), 프로그램을 계속 수강할 의향이 있다 122명(60.1%)의 문항 모두 그렇다 의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체로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 대한 Cronbach(신뢰도)는 .858로 신뢰도는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평균	Cronbach
수강료	매우 그렇지않다	3	1.5	3.88	.858
	그렇지 않다	7	3.4		
	보통이다	43	21.2		
	그렇다	109	53.7		
	매우 그렇다	41	20.2		
	계	203	100.0		
교육시설	매우 그렇지않다	6	3.0	3.66	
	그렇지 않다	17	8.4		
	보통이다	47	23.2		
	그렇다	103	50.7		
	매우 그렇다	30	14.8		
	계	203	100.0		
음악적 지식에 도움	매우 그렇지않다	4	2.0	4.16	
	그렇지 않다	1	.5		
	보통이다	24	11.8		
	그렇다	103	50.7		
	매우 그렇다	71	35.0		
	계	203	100.0		
강의내용 이해도	매우 그렇지않다	4	2.0	3.88	
	그렇지 않다	1	.5		
	보통이다	56	27.6		
	그렇다	97	47.8		
	매우 그렇다	45	22.2		
	계	203	100.0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수강여부	매우 그렇지않다	3	1.5	4.16	
	그렇지 않다	4	2.0		
	보통이다	12	5.9		
	그렇다	122	60.1		
	매우 그렇다	62	30.5		
	계	203	100.0		

3. 평생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상관관계

1)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성별을 남, 여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하여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남, 여 평균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생교육 여성참여자의 참여욕구는 매우 높고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이 평생음악교육에 더 높은 참여욕구를 갖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고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과제난이도선호	여성	147	30.57	6.10	-.651	.516
	남성	56	29.98	4.77		
자기조절효능감	여성	147	38.16	5.79	-1,045	.297
	남성	56	37.25	4.73		
자신감	여성	147	30.12	4.63	-.039	.969
	남성	56	30.09	3.10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여성	147	98.84	13.58	-.772	.441
	남성	56	97.32	9.32		

2) 연령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수강생들의 연령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분석해보았다. 연령은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각 연령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유의확률은 0.01보다 크므로 유의미한 상관은 없었다. 하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을 보면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모두 연령에 따라 비슷하므로 연령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연령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과제난이도 선호	41~50	41	31.37	5.830	2.621	.107
	51~60	71	30.83	4.890		
	31~40	30	30.77	6.072		
	30대미만	14	30.71	7.790		
	60대이상	47	28.62	5.900		
	합계	203	30.41	5.759		
자기조절 효능감	30대미만	14	41.79	6.351	5.205	.024
	31~40	30	38.43	5.110		
	51~60	71	37.87	4.398		
	41~50	41	37.29	5.105		
	60대이상	47	37.00	6.944		
	합계	203	37.91	5.526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신감	31~40	30	31.10	4.428	.655	.419
	30대미만	14	30.64	5.048		
	51~60	71	30.08	4.275		
	60대이상	47	29.98	4.276		
	41~50	41	29.39	3.833		
	합계	203	30.11	4.259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30대미만	14	103.14	15.566	4.100	.044
	31~40	30	100.30	13.552		
	51~60	71	98.79	10.859		
	41~50	41	98.05	12.282		
	60대이상	47	95.60	13.375		
	합계	203	98.42	12.547		

3)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교육수준은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이 0.01보다 작거나 같아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결과 0.010*은 유의수준 0.01과 같은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제난이도 선호 영역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성인수강생이 대학원 졸업이하 교육수준의 성인수강생들보다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과제난이도 선호	대학원졸업이상	18	33.39	5.521	6.740	.010*
	대졸	120	30.61	6.095		
	고졸	57	29.23	4.652		
	중졸	8	29.13	6.446		
	합계	203	30.41	5.759		
자기조절 효능감	대학원졸업이상	18	39.83	5.205	.848	.358
	중졸	8	38.75	4.334		
	대졸	120	37.79	5.618		
	고졸	57	37.42	5.564		
	합계	203	37.91	5.526		
자신감	중졸	8	31.25	4.892	.238	.626
	대학원졸업이상	18	30.98	4.457		
	대졸	120	30.12	4.145		
	고졸	57	29.68	4.396		
	합계	203	30.11	4.259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대학원졸업이상	18	104.11	12.897	3.082	.081
	중졸	8	99.13	12.677		
	대졸	120	98.52	12.934		
	고졸	57	96.33	11.265		
	합계	203	98.42	12.547		

**p<.01

4) 직업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직업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직업은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판매직, 학생, 주부, 무직, 기타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 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문직, 기술직, 생산직, 판매직 등 모두 비슷한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직업에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학생의 경우 자기조절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학생은 학업성취를 위해 자기평가, 자기관찰, 자기반응의 훈련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자기조절전략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직업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과제난이도 선호	사무직	16	32.06	5.446	2.625	.107
	전문직	25	31.92	7.494		
	학생	8	31.63	6.501		
	무직	13	30.62	3.969		
	서비스직	12	30.58	3.397		
	주부	104	29.94	5.791		
	기타	19	29.47	5.379		
	기술직	5	28.40	5.941		
	생산직	1	28.00	.		
	합계	203	30.41	5.759		
자기조절 효능감	학생	8	40.00	5.451	.150	.699
	무직	13	39.54	6.802		
	생산직	1	39.00	.		
	전문직	25	38.20	5.730		
	사무직	16	38.13	5.353		
	기타	19	38.05	5.049		
	주부	104	37.76	5.517		
	서비스직	12	35.83	6.132		
	기술직	5	35.40	2.302		
	합계	203	37.91	5.526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신감	생산직	1	33.00	.	.333	.565
	서비스직	12	31.25	3.166		
	기술직	5	31.20	3.194		
	전문직	25	30.36	4.527		
	기타	19	30.21	4.090		
	무직	13	30.00	4.397		
	주부	104	29.95	4.466		
	사무직	16	29.88	4.064		
	학생	8	29.00	4.472		
	합계	203	30.11	4.259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학생	8	100.63	14.696	.586	.445
	전문직	25	100.48	14.878		
	무직	13	100.15	11.817		
	사무직	16	100.06	12.019		
	생산직	1	100.00	.		
	기타	19	97.74	12.961		
	서비스직	12	97.67	9.717		
	주부	104	97.65	12.571		
	기술직	5	95.00	10.368		
	합계	203	98.42	12.547		

5) 결혼상태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성인수강생들의 결혼상태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결혼상태는 기혼자, 미혼자로 구분하여 t검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는 유의 수준 $p <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음악교육프

로그랩 성인수강생들은 결혼유무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의 평균을 보면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어려운 과제와 구체적인 과제난이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업적인 수행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조절 전략에 대한 효능기대수준이 높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결혼상태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과제난이도 선호	기혼	25	31.92	7.494	-1.143	.254
	미혼	5	28.40	5.941		
자기조절효능감	기혼	25	38.20	5.730	-1.691	.092
	미혼	5	35.40	2.302		
자신감	미혼	5	31.20	3.194	-.408	.684
	기혼	25	30.36	4.527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기혼	25	100.48	14.878	-1.408	.161
	미혼	5	95.00	10.368		

4. 성인수강생들의 음악교육경험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상관관계

1) 평생음악교육에 참여한 교육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인수강생들이 평생음악교육에 참여한 교육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평생음악교육에 참여한 교육기간은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참여교육기간은 유의수준 $p < .01$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모두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평균을 보면 2년 이상 평생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수강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감 영역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과제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수강생들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8> 평생음악교육에 참여한 교육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과제난이도 선호	2년이상	93	31.26	5.940	4.969	.027
	6개월~1년미만	22	31.23	4.780		
	1년~2년미만	38	29.92	5.180		
	3개월~6개월미만	21	29.05	5.536		
	1개월~3개월미만	29	28.69	6.415		
	합계	203	30.41	5.75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기조절 효능감	2년이상	93	38.44	5.496	.307	.580
	1개월~3개월미만	29	38.03	5.698		
	6개월~1년미만	22	37.73	5.608		
	3개월~6개월미만	21	37.38	6.996		
	1년~2년미만	38	36.89	4.561		
	합계	203	37.91	5.526		
자신감	1개월~3개월미만	29	30.93	3.981	.186	.667
	2년이상	93	30.40	4.243		
	3개월~6개월미만	21	30.10	5.137		
	6개월~1년미만	22	29.86	4.098		
	1년~2년미만	38	28.92	4.029		
	합계	203	30.11	4.259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2년이상	93	100.10	12.688	1.236	.268
	6개월~1년미만	22	98.82	10.782		
	1개월~3개월미만	29	97.66	13.942		
	3개월~6개월미만	21	96.52	14.821		
	1년~2년미만	38	95.74	10.505		
	합계	203	98.42	12.547		

2)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 유무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 유무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 유무는 예, 아니오로 구분하여 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준 $p < .05$ 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교교육 이외에 받았던 음악교육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습상황에서 성공적인 성취경험에 따른 과제는 유사과제로까지 전이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성공적인 성취경험에

의한 자기효능감의 증감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악교육경험이 있는 수강생과 없는 수강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전의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유무는 성인 수강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9>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 유무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과제난이도 선호	예	97	30.99	5.889	1.378	.170
	아니오	106	29.88	5.612		
자기조절효능감	예	97	38.55	5.551	1.584	.115
	아니오	106	37.32	5.464		
자신감	아니오	106	30.14	4.123	-.116	.908
	예	97	30.07	4.424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예	97	99.61	12.510	1.289	.199
	아니오	106	97.34	12.542		

3)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성인수강생들은 1개월부터 많게는 40년 동안 음악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평균을 낸 뒤 5년 이상 5년 이하로 구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5년 이상 음악교육을 받은 성인수강생들이 유의수준 $p < .05$ 에서 과제난이도 선호 ($t = -3.188$, $p = .002$, $p < .05$), 자기조절효능감 ($t = -3.213$, $p = .002$, $p < .05$),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t = 3.686$, $p = .000$, $p < .01$)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 이외에 5년 이하의 음악교육을 받은 성인수강생보다 5년

이상 음악교육을 받은 성인수강생이 더 어렵고 구체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도전적이고, 학업적인 수행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조절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확신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체적으로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20>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과제난이도 선호	5년이상	25	34.08	6.904	-3.188	.002*
	5년이하	72	29.92	5.123		
자기조절효능감	5년이상	25	41.48	5.554	-3.213	.002*
	5년이하	72	37.53	5.211		
자신감	5년이하	72	29.57	4.083	-1.926	.057
	5년이상	25	31.52	5.100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5년이상	25	107.08	14.543	-3.686	.000**
	5년이하	72	97.01	10.661		

*p<.05 **p<.01

5. 성인수강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상관계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21>에서 볼 수 있다.

만족도 문항은 강사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전체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음악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1에 가까운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유의확률이 0에 가까우므로 상관계수가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수강생들이 느끼는 음악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간에는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음악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N=203)

	상관계수, 유의확률	학업적 자기효능감	프로그램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Pearson 상관계수	1	.999**
	유의확률		.000
프로그램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999**	1
	유의확률	.000	

**p<.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과 음악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수집된 통계자료 203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부설평생교육원과 그 외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현황은 수업시간, 수업횟수, 교육기간, 모집인원 등 수강료와 레슨 방식 및 특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했다. 수강료는 매우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으며 특전은 매 학기가 끝난 뒤 향상음악회 및 연주회를 여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평생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수강생들의 개인적 사항을 알아본 결과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함을 알 수 있었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성인수강생들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교육 수준별로는 대부분 대학교 졸업 이상의 수강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직업별로는 주부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많았으며 이는 직장에 다니는 성인들보다 주부가 평생음악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수강생들의 수업형태는 그룹활동식의 수업이 가장 많았으며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로는 자기계발과 음악적 소양을 갖추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참여하는 성인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는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인수강생의 개인적 사항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변인을 세 가지 요인(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검증결과는 과제난이도 선호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학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성인수강생이 그 이하의 성인수강생들보다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어렵고 구체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진숙(2010)⁴¹⁾의 분석결과에서 대졸이상의 학습자들이 고졸이하 학습자들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의 음악교육경험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 측정변인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기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에 받은 음악교육기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검증결과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 이외에 5년 이하의 음악교육을 받은 성인수강생보다 5년 이상 음악교육을 받은 성인수강생이 더 어렵고 구체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도전적이며, 학업적인 수행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조절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확신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전체적으로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2년 이상 평생

41) 성진숙 (2010), “평생교육 여성학습자의 자기효능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4

음악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지현(2009)⁴²⁾의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음악적 경험이 많아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결과이다.

넷째,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수강하는 성인수강생들의 만족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와 만족도 전체를 분석해 본 결과 음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 성인수강생들이 지속적인 음악교육을 받기위하여 평생교육수강생, 평생교육기관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단기간에 증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강의계획을 알고, 심화과정을 통해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 음악프로그램 강좌를 인터넷이나 브로슈어를 통해 찾아보면 3개월 교육기간에 대한 강의계획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2년 이상 평생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수강생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결과로 볼 때 수강생들이 장기적인 교육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심화단계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바이엘과 기초이론 1>, <체르니100 & 코드(C, D, E, F) 2>, <체르니 30 & 코드(G, A, B)

42)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분석”, 음악교육공학, vol. 8, p.163

3> 등 이러한 방식으로 수강생들 개개인이 교육받을 진도를 예상하면서 2년 이상 배울 목표를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수강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구체적인 강의계획을 알고 개선된 심화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장기간의 목표를 갖고 음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수강생들이 느끼는 음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을 조사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음악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수강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부분 등 좀 더 구체적인 만족도 문항으로 음악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성인수강생들에게 많은 연주기회와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상음악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지연(2011)⁴³은 성악발표회나 연주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초기의 음악적 경험이 성공으로 느껴질 때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더욱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는 성인수강생들에게 많은 연주기회를 부여할수록, 성공적인 경험을 느끼게 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수강생들이 지속적인 음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 음악교육프로그램은 매 학기가 끝난 뒤 향상음악회 및 연주회를 열고 성공적인 음악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상음악회

43) 이지연 (2011), “성악발표회를 통한 연주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40

및 연주회의 경험유무에 따른 성인수강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연구를 통해 성인수강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이중·심의보·안승렬 (2001), *현대사회와 평생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권이중·이상오 (2010), *평생교육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김남희 (2000), “교사효능감과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인 학교생활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 (2010), *학업동기*, 서울: 학지사.
- 김아영·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The Journal Educational Research*, 한국교육학회, 제39권 제1호.
- 김정희 (2006), “교사효능감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영재와 영재교육*, 한국영재교육학회, Vol.5 No.1
- 김은양 (200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서·황종건·김신일·한승희 (2002), *평생교육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 나건 (1986),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선 (2003), “음악활동이 초등학교 신입생의 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 (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The Korean Journal Education Psychology*, 한국교육심리학회, Vol.17 No.1.
- 박지현 (2008), “음악적 동기유발 과정 이해: 요소들 간의 직·간접적 상호작용”, *계간 낭만음악*, 21(1).
-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분석”, *음악교육공학*, vol. 8

- 성진숙 (2010), “평생교육 여성학습자의 자기효능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한숙 (2012), 통합적 음악학습(CMLS)을 적용한 국악 수업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운성 외 공역(2004), Bandura A.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
- 윤진 (200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교육 실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일 (1992), 음악교육학개설, 서울 : 현대음악출판사.
- 이지연 (2011), “성악발표회를 통한 연주경험이 초등학생의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12), “이해를 위한 교수를 적용한 음악창작수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순 (2011),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경험 및 자기주도학습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수 (2010), “중년기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실 (1990),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한승희 (2009),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홍기형·이화정·변종임 (2004),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황종건 (1994),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파주 : 정민사.
www.mest.go.kr 2010,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 통계자료집.
- Bandura,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ts, NJ : Prentice Hall.
- Dave, R. H. (1976).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 Locke, E. A. & Latham, G. P. (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Englewood, NJ: Prentice Hall.
- Lengrand, P. (1970).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 Shunk, D. H. (1982).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 Differential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548-856.

ABSTRACT

Adult Learner's Academic Self-efficacy at Music Education in Lifelong Education

Hyun Lee, Kim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to provide help for enhancemen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activation of music education programs so that adult students attending music education programs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is objectiv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203 adult students attending music education programs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was analyzed. Through such analysis results,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dependent on personal details, music education experience, program satisfaction, etc. was analyzed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erived.

First, an analysis of correlations with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dependent on personal details of adult students indicated significant results in an education level, and a significant influence exerted in preference domain of sub factors such as task difficulty.

Secondly, an analysis of correlations with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of adult students attending music education programs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dependent on music education experience showed a high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for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lifelong music education programs for more than 2 years. It could also be seen that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was the more enhanced, the more than 5 years the music education period other than received in a previous school education. Among 3 measurement variable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indicated in all of the preference of task difficulty, the sense of self-controlled efficacy and the sense of self-efficacy.

Thirdly, an analysis of correlations with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of adult students attending music education programs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dependent on program satisfaction revealed that the higher was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the higher the satisfaction for the music education programs .

When such results are combined, it may be seen that the adult students in music education programs at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prefer the higher tasks with a challenging spirit, the higher their education level, and it may be ascertained that very

positive influence in enhancement of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is exerted by the students with participation in the lifelong music programs for more than 2 years and music education experience for more than 5 years. Also, the satisfaction for music education programs perceived by adult students has been shown to have a high correlation with the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Consequently, in order for the adult students to continuously receive a lifelong music education with enhanced sense of academic self-efficacy, a long-term education through enrichment should be implemented,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enhancement of the sense of efficacy cannot be achieved in a short term. Also, the students should be made to consistently sense the experience of successful achievement, while the music education programs are improved to actively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for performance so as to be activated as a program allowing the students to receive music education over their lifetimes.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 음악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설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정도이며 작성 후 꼭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점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자 김 현 리 올림

[I]. 개인적 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30세이하 ④ 51~ 60	② 31~ 40세 ⑤ 60세이상 ③ 41~ 50
3. 교육수준	① 초등졸 이하 ④ 대졸	② 중졸 ⑤ 대학원졸업이상 ③ 고졸
4. 직업	① 전문직 ⑤ 서비스직 ⑨ 무직	② 기술직 ③ 사무직 ④ 생산직 ⑥ 판매직 ⑦ 학생 ⑧ 주부 ⑩ 기타
5.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Ⅱ]. 음악교육경험

1. 수강하시는 강좌는 어떤강좌입니까?	()
2. 수강하시는 과목의 수업형태를 표시해주시시오.	① 강의식 ② 그룹 활동식 ③ 개인 레슨식 ④ 기타
3. 평생교육 음악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② 취업목적을 위해 ③ 자기계발과 음악적소양을 갖추기위해 ④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⑤ 인간관계 확대를 위해 ⑥ 기타()
4.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개월 ~ 3개월 미만 ② 3개월 ~ 6개월 미만 ③ 6개월 ~ 1년 미만 ④ 1년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5. 이전에 학교교육 이외의 음악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예는 2-1로 가시오) ② 아니오 (아니오는 [Ⅲ]으로 가시오)
5-1.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초,중,고 ⑥ 초,중,고,대학 ⑦ 기타()
5-2. 받은기간(경력)기간을 써주십시오. (예: 약2년)	()
5-3. 이전에 받은 음악교육이 평생 음악교육을 받았을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예는 가로 가시오) ② 아니오 (아니오는 나로 가시오)

가. 어떤 점이 평생 음악교육에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보기>에서 우선 순위대로 세 가지를 골라 적어주십시오.

< 보 기 >

① 올바른 인격형성과 삶의 질 향상	② 음악교과에 대한 이해
③ 음악적 표현력 증대	④ 음악 연주능력
⑤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증진	⑥ 사회성 발달에 도움
⑦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보기>에서 우선순위로 골라 적어 주십시오.

< 보 기 >

① 배웠던 기간이 짧아서	② 음악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③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④ 음악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⑤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Ⅲ].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Ⅲ-1. 강사에 대한 만족도

문항	매우 그렇 지 않 다	그렇 지 않 다	보 통 이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2. 강사의 음악전문성에 대하여 만족한다.					
3. 강사와의 인간관계는 원활하다.					
4. 강사의 학습 진도속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5. 강사는 학습자의 수업참여를 유도한다.					

Ⅲ-2.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문항	매우 그렇 지 않 다	그렇 지 않 다	보 통 이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수강료는 적절하다.					
2. 교육시설(강의실, 주차장, 휴게실 등)은 적당하다.					
3. 프로그램은 나의 음악적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4. 프로그램의 강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					
5. 프로그램을 계속 수강할 의향이 있다.					

[IV]. 학업적 자기효능감

NO	문항	전혀 아니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곡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2	나는 쉬운 곡 보다는 조금틀리더라도 어려운곡이 더 좋다.					
3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생각하게 만드는 곡이 더 재미있다.					
4	나는 쉬운곡 여러 개 보다 어려운곡 한곡을 다루는 것이 더좋다.					
5	나는 레슨 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6	레슨시간 중에 선생님이 연주를 하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7	나는 레슨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8	나는 레슨시간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9	나는 정해진 시간안에 주어진 연습과제를 잘 마칠수 있다.					
10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하지 못한 연주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11	만약 여러 곡 중 몇곡만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곡만을 선택할 것이다.					
12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13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제대로대답하지 못한다.					
14	나는 레슨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5	나는 어떻게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16	레슨 날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7	나는 쉬운 곡 보다는 어려운 곡을 좋아한다.					
18	나는 레슨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19	가능하다면 어려운 곡은 피해가고 싶다.					
20	내가 싫어하는 레슨시간이어도 주의집중을 잘할 수 있다.					
21	나는 보통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연습한다.					
22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23	나는 레슨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 할 수 있다.					
24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연주하는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25	레슨시간에 연주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26	연습곡은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27	연주를 하기 전에는 연주를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8	나는 깊이 생각해야하는 곡보다는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더 좋아한다.					